

**언더우드기념사업회-선교보고서 편집항목**  
**방글라데시 장순호선교사(1984.4-2015.9)**

**1. 개요**

**(1) 인적사항**

- 1) 출생 : 1955년 10월 1일 충남 예산 삼교감리교회 목사관에서 출생.
- 2) 가족 : 처 ( 민은주, 간호사), 자녀 2남 1녀 (장남 장대식, 목사 /  
차남 장영식, 교사/ 딸 : 장혜선, 대학생).
- 3) 주요연혁 :
  - 1984년 4월 방글라데시 선교사 파송.
  - 1988년 5월 초교파 전문인 선교기구 (사) 한국방글라데시 개발협회(KDAB) 설립.
  -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

**(2) 선교지역 개요(인터넷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선교 사님께서 증인으로 살아오신 지역의 생생한 현장의 정보-언어, 문화, 종교, 사람, 지역 주민의 삶의 양식 등-를 소개해 주십시오.)**

**1) 언어**

세계 4대 언어 가운데 하나인 벥골어는 한글 구조와 매우 비슷하여 읽고 쓰기 쉽다. 이 아름다운 언어에 대한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사랑은 남다르다. 언어와 종족 및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동·서 지역이 한 나라로 독립되고, 서파키스탄에 의한 차별정책이 심했었다. 동파키스탄도 서파키스탄의 언어인 우르두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항한 “벥골어 운동”은 약 9개월 동안 3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지켜냈고 191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타고르와 놀이슬람 등의 시성들과 수많은 문학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2) 문화**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자연환경, 만성적 가난과 힘들었던 역사를 경험하며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믿어 온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 종교에 따라서 씨족 단위로 모여 살면서 갈등과 공존을 반복하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종교에 따른 다양한 절기와 규례를 지키고 전승하는 것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여기는 종교 중심문화다. 전통적으로 시와 노래를 좋아하며 체념주의, 지역중심, 외부세력에 대한 경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과 노인은 무시하지만 어머니는 존경한다. 모슬렘, 힌두교도들은 아들 중심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일부 부족들은 딸에게 재산을 상속한다. 노란색은 악귀를 쫓는 색으로, 녹색은 평화, 붉은색은 승리로 인식하며 여성들은 남성들과 악수하지 않고, 동성끼리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은 단순한 우정 표시로 이해한다. 모든 음식에는 카레가 사용되는데, 밥을 먹을 때에는 오른손을 사용하며 적극적으로 사양하지 않으면 계속 먹으라고 권하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호감이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동경이 있다. 외국인과 결혼을 하거나 가족 중에 외국인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선호한다.

### 3) 종교

BC 5세기 중엽 마가다 왕조의 지배를 받으면서 불교가 전파되었다. 그러나 AD 4세기 굽타왕조가 부라만 교를 국교로 정하여 불교가 일시 쇠퇴하였으나 AD 8세기경 팔라왕조가 들어서면서 불교가 전 벵골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 1204년 회교도의 침입으로 팔라왕조가 멸망하고, 터키계 회교도들에 의해 지배되어 영국식민통치로 대체될 때까지 회교 지배가 계속되었다. 무갈 왕조의 아크바르대제는 토지의 사유를 금지하고 왕이 전 토지를 소유하면서 궁정 회교귀족에게 하사하였고 귀족들은 기존의 카스트제도를 이용하여 토지를 지방호족(힌두교도)에게 세습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궁정 회교귀족을 중심으로 이슬람이 번성하고 비회교도에 대한 인두세가 부과되는 등 차별정책이 시작되자, 카스트 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교로의 개종이 시작되었고 오늘날의 회교국가 되었다. 1988년 5월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임을 선언한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도들의 개종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외국인(선교사)의 이슬람교도를 타종교(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어떠한 노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벵골 지역의 개신교 선교는 윌리엄 캐리에 의해 시작되었다. 1947년 200여 년간의 영국 식민지 기간이 마감되고 전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두 개의 새로운 나라로 분리되었다. 1971년 독립 전쟁이 발발하여 방글라데시라는 새로운 나라로 탄생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이슬람 국가임을 선포하고 모든 소수종교들, 즉 힌두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등국민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사회적, 종교적 압박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에서 약 7,000만 명 사람들의 삶이 황폐화되었고 초기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은 인도에 남거나 동 파키스탄 지역에서 인도로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동파키스탄 지역의 기독교 리더십에 큰 공백이 생겨났다. 서방세계의 다양한 지원이 시작되며 다양한 교리와 원칙을 내세우며 들어온 수많은 외국의 선교단체들은 당시의 현지 기독교인들과 비(非)기독교인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 시켰다. 서방교회의 많은 재정들이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했지만 기존 교회 안에는 이러한 지원과 재정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규 신학교육을 받은 잘 훈련되고 유능한 교수진들이 자리에 서지 못했고, 다양한 선교단체들은 서로 다른 교회들에서 온 사람들을 동원하여 구제사역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 교회의 본질과 영성은 상실되었고 양육된 이들을 서로 빼앗아 차지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당시 방글라데시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구

제사역등의 사회사업을 교회의 주요 업무로 여긴 이유로 지역교회들에서는 전도와 양육 사역이 차선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교회의 불균형과 교회 내부에서도 불편함을 야기하였고 교회의 연합이나 하나 됨, 형제애와 같은 가치들은 거의 상실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구제와 사회사업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교회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교회는 점차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잃고 하나의 자선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오늘날 방글라데시에는 67개의 기독교 종파가 있다. 가장 큰 조직은 로마 가톨릭으로 전체 기독교 인구의 약 60%를 차지한다. 나머지 40%의 개신교는 66개의 종파로 나누어져 있고 지난 200년 동안 기독교는 일부 수용적인 힌두교인, 주요 지식인만을 전도하였고 초기선교사들의 사역지이었던 보리살, 쿨라, 디나즈뿔, 다카, 치타공 등 주요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고 북부 꾸리그람을 비롯한 469개의 도청 소재지들과 시골마을들, 그리고 가장 큰 공동체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몇 몇 단체들이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역들을 활발히 진행하여 희망적인 결과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 4) 사람

① 특징 : 벵골 지역에는 선사시대부터 원주민인 드라비다 족이 살고 있었으나, BC 6세기 경 부터 인도 등지로부터 아리안 족이 침입하여 곳곳에 섞여 정착하기 시작했다. 또한 가까운 티베트, 미얀마 등지로부터는 터키족, 몽고족 등이 이주해 와 종족간의 혼혈이 이루어진 벵골인들이 주류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 밖에 방글라데시 국경지역에는 지역 간의 고립에 의해 비교적 고유의 혈통을 보존해 오고 있는 약 60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이들은 불교, 힌두교, 기독교 및 무속신앙을 믿으며 온순하고 사냥이나 농사를 지으며 여성들이 남성보다 많은 일을 하는 모계 중심 사회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

② 전반적인 성향 :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잘 동요되는 집단주의가 강하고, 정치적으로 예민하며 다혈질이다. 특히 매해 건기에는 여야로 나뉘어져 충돌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등 이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

③ 찰마리·울리뿔 지역 주민 : 인근 보구라 시와 브라마푸트라 강(힌두교 성지)을 중심으로 가난한 힌두교 사람들이 주류였으나, 동·서 파키스탄 전쟁 당시 재력이 있는 인도 지역의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이주해왔다. 그들은 가난한 이 지역 주민들의 상업, 경제, 토지를 점령했고 지정학적 특성 상 국경의 오지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아 장년층 대부분은 정규교육을 못 받은 무학자들이 많다. 찰마리 지역은 잦은 홍수 피해로 늘 집이 떠내려가고 물에 잠겨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체념주의가 만연되어있으며 울리뿔 지역은 힌두교 주민이 많고, 나병과 같은 피부

질환 환자가 많다.

#### 5) 지역주민의 삶

1948년 이전까지의 방글라데시는 영국에 대한 공업용 원자재 공급원 겸 영국 상품 시장으로서 전형적인 식민지적 경제구조였다. 19세기부터 홍차와 황마 경작이 확대되었지만 나일론 출시와 서파키스탄의 차별정책으로 세계 최대 빈곤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방글라데시는 전형적인 저개발농업국가로 전체인구의 약 6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이 국내 총생산 중 35%를 차지하고 있지만 히말라야의 눈이 녹고 비가 오는 몬순이 겹치면 연례행사인 홍수가 일어난다. 국토의 삼분의 일이 홍수 피해 가능 지역으로 강물이 불어나고 태풍이 불어 벵골 만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게 되면 강들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세계 1위의 높은 인구밀도, 높은 인구증가율(1.78%), 높은 문맹률(67.6%), 낮은 국민자본 축적 및 기술수준의 낙후, 합리적 경제정책을 추진할 정치사회적 기반 취약과 잦은 총파업, 부존자원 빈약 등이 지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들이다.



① 수도인 다카는 전국에서 유입된 사람들로 인한 급속한 도시 확장으로 현재 천만 명 이상이 사는 대도시로 시내 중심가 및 외국인들과 부유층의 거주 지역은 국제도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유층 주민들의 소득과 교육수준은 높지만, 대책 없이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저임금과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는 봉제공장과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며, 빈민들과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혼잡하다. 국교인 이슬람이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힌두, 불교, 기독교 등에 개방적이며 다양한 문화와 종교, 인종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② 찰마리군 : 북서부 국경 지역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제일 먼저 홍수 피해를 입는 상습홍수 피해지역으로 2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도 비데시(외국인)이라 부를 정도로 고립지역이며, 강한 모슬렘 인구가 많고, 평생 동안 가족단위로 마을을 이루고 살아왔다. 최근에서야 전기와 통신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벼, 황마 농사 등을 하며 살고 있으며 겨울철에 영상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영양실조에 의한 동사자가 생기기도 한다. 전체 면적의 70%가 브라마

푸트라 강에 침식되었고, 강 안쪽으로 27개 섬에 약 2만 여명이 거주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도로망이 좋아지며 왕래하는 폭은 늘었으나, 주민들 대부분이 타지로 나가 본 적이 없는 주민들이 많다. 특히, 섬 여성들 대부분은 출생 후 죽을 때까지 섬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고 강이 자주 범람하여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땅콩, 소를 키우며 삶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거, 의료,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③ 울리뿔군 : 30만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과거 주산물인 황마의 집산지였다. 타 지역에 비해 가난한 힌두교도들과 나병환자, 악성 피부질환자가 많고 주 수입원은 농업으로 높은 습도와 강우량이 많다.



(3) 주요 선교활동을 시간 순서 또는 사역별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1) 1984~1987 : 벙골어 연구 (다카대학교, 언어학교), 방글라데시 서구선교 현장연구 (지역별, 분야별, 교단 및 파송국가별, 선교단체 별 중심 사역과 결과 등).

2) 1985~1988 : 방글라데시 신학대학(CCTB), 기독교 제자학교(CDC), 방글라데시 대학생 선교회(CLB), 방글라데시의 친구(FOB), 방글라데시 M 선교회(MMB)등 방글라데시 선교기관 지원. 다카연합교회(DUC), 방글라데시 아가페 선교회(AMB), 발루까 수양관 설립.

3) 1987 : 한국방글라데시개발협회(KDAB) 설립.(사역분야, 사역지역 선정).

4) 1988 : KDAB 한국 사무실 및 선교훈련원 개설(한인사역자 및 현지인 사역자 선발과 훈련 시작).

5) 1989~1994 : NGO등록(방글라데시 NGO국), 찰마리와 울리뿔교회, 다카음악학교, 찰마리 병원, 울리뿔 나환자 재활훈련원, 봉제기술학교, 찰마리 유 초등학교, 농군학교 사역시작.

6) 1995~1999 : 사단법인 등록(대한민국 외교부), 북 미주 지부 사무실 개설, 다카, 울리뿔, 찰마리 컴퓨터 훈련원, 다카 새순학교시작.

7) 2000~2010 : 현지 지도력 강화, 찰마리와 울리뿔 중·고등학교 시작, 울리뿔 교회 건축, 농장 등 자립기반 조성사업 시작.

8) 2011~2015 : 현지인 사역자 KDAB 운영관리 전담, 한인사역자 양육과 말씀사역 집중, 찰마리와 울리뿔 초·중·고등학교 교실 및 강당, 언졸리 자립마을, 병원, 태양열 부화장, 찰마리 교회, 선교관/생활관 건축.

- 중점 사역

1) 중점 사역대상 : 찰마리 군 주민 20만 명(성 주민 2만 명 포함), 울리뿔 군 주민 30만 명(나환자 1,000가정 포함), 방글라데시 기독교 지도자, 신학생, 대학생, 예술인, 다카 시 꼴란 뿔 지역 주민 등.

2) 사역의 중심 가치 : 사람, 지역교회, 자립공동체.

3) 중점 사역 분야

① 증거사역 - 개인전도. 양육, 찰마리, 울리뿔 교회 사역, 모슬렘 및 힌두교인 전도.

② 교육사역 - 유.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통한 소통.

③ 의료사역 - 병원, 성 진료, 이동진료, 공중보건 사역을 통한 봉사.

④ 지역개발사역 - 나환자 재활 훈련, 자립마을, 농촌 지도자훈련, 시범농장, 신용조합 사역을 통한 자립공동체 설립.

⑤ 직업훈련 사역 - 봉제 및 컴퓨터교실을 통한 소통과 지원.

⑥ 문화 및 스포츠 사역 - 국제음악학교 & 칼리지, 태권도 아카데미 사역을 통한 소통과 교류.

⑦ 장학사역 - 신학생 및 상급학교 진학자 지원.

**(4)선교사님 사역에 바탕이 된 성경말씀 또는 선교비전, 사명 선언서 등을 소개해 주십시오.**

1)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눅 9:3~5)

2)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1서 3:17~18)

3)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

25:40)

4)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 (고후 3:3)

5)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여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4:9-10)

## 2. 준비

### (1) 성장(선교사로 헌신하기 전까지 살아오신) 과정을 소개해 주십시오.

감리교목사인 아버지와 교육열이 남다른 어머니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성장과정에서 만성 중이염, 급성뇌염, 장티푸스 등을 앓았고 병약했다. 초등학교 1학년 여름에 급성뇌염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UMC 파송 서인근 선교사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완쾌된 고마움을 늘 지니고 자랐다. 중학교 시절이 되어서 간디, 링컨, 슈바이처 등의 위인을 좋아하게 되었고 아프리카 선교사인 슈바이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였다. 1971년, 대전고등학교 1학년 때 참석한 선교집회에서 당시 큰 어려움 중에 있는 티벳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로 다짐하게 되면서 책상위에 티벳 지도를 붙여놓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그러나 대학 진학과 청년기의 오랜 방황 기간을 거치며 어릴 적 꿈을 까맣게 잊고 지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예배 때 설교하시는 아버지께 안 계신 하나님을 전하지 말라며 방해하기도 했고, 자살 소동 벌이는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눈물의 철야 기도하시는 부모님 영향으로 1980년 1월 회심하였다.

### (2) 선교사를 꿈꾸게 된 계기 또는 선교사로 부르심(소명) 받은 것에 대하여 소개해 주십시오.

회심한 후에, 한국의 소록도에서 이주한 음성나환자 20여 가정이 충북 청원군 남일면의 한 시골마을에 정착하여 움막을 짓고, 돼지와 닭 등을 키우며 살고 있는 곳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마을 주민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들어오기 꺼리는 마을이라 더 이상의 전도 대상자가 없었고, 새 교우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환자수를 늘려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 온 방글라데시인 목사가 선교보고 중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는 만성가난, 질병,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인구 1,000당 1명이나 되는 나환자들이 있지만 이들을 돌볼 사람과 전도자가 없어 1억이 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간 전도

자를 보내 달라”는 호소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의 환상으로 들려 1983년 5월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3) 선교사역 준비과정, 특히 언어, 선교관련 교육, 신학적 훈련, 선교비와 생활비(지원) 등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준비과정에서 출석 또는 파송교회로부터 선교와 관련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대학졸업 후 신학교와 대학원에서 선교관련 분야에 특별한 관심 있었지만 당시에는 선교학과목과 전공교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선교와 관련된 서적을 읽고, YM·OM·WAC 등 국제선교단체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찾아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현지 언어는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후 다카 국립대학교 방글라데시 어학과에 입학하여 방글라 디폴로마 과정을 졸업(1987년 6월)하였다. 동시에 이 기간에 방글라데시 서구 선교 현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파송교회로부터는 항공료, 현지정착금, 월 생활비 600불의 지원과 전폭적인 기도후원을 받았다.

**(4) 선교지역 및 대상, 주요 선교사역 결정 과정**

**(4-1) 현재의 선교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교지역을 선정하는 데 영향을 준 인물(또는 사건)을 소개해 주십시오.**

1) 찰마리 지역:

방글라데시에서의 첫 번째 사역은, 가난한 교역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사역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지역교회들이 가정집이나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학생들은 기숙사비가 없어서 신학교에 오지 못하고 파송 받은 교역자들의 기본 생활비를 지역교회들이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가난한 목사 아들로 자란 나에게 이런 방글라데시 교회의 가난한 현실들은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그래서 현지인 전도자들을 지원하고 예배처소를 건축하는 일에 열정과 정성을 쏟았다. 이 사역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매월 지원하는 방글라데시 신학생과 교역자들이 200여명으로 늘어났다. 신학생 후원과 관리는 신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역자들의 생활비는 인편이 아니면 송금할 수 없고 관리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은 방문하고 다른 한 번은 교역자들이 도시로 나와서 2-3일 동안 함께 지내며 사역에 대한 간증과 보고를 하고 강의를 듣고, 예배드리며 찬양과 기도로 재충전을 받고 생활비도 전달해 드렸다. 이 모임은 후에 현지인 목회자 연장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지금도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한국의 교인들은 선교지에다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기념 교회와 신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물 머릿돌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선교지의 신학교 지원이나 교회당을 헌납하는 일에는 서로가 나섰다. 당시 미화 5,000불이면 벽돌로 예배당 건물을 지을 수 있었고, 함석지붕에 대나무를 사용하면 500불이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체적으

로 부지를 마련하면 건축비를 전액을 지원한다고 광고했더니 86곳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건축허가가 필요 없는 나라이기에 큰 종이에 건물 모양, 크기, 넓이, 창문, 정문 등을 그리고 건축자재들을 직접 사다 주었다. 그러고는 공사 현장마다 돌아다니며 감독하여 신청이 들어 온 모든 지역교회들의 예배당을 완공했다. 계속해서 지역교회 건물들이 세워지고, 현지인 교역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당장이라도 간판을 걸면 교단을 설립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난한 부족들과 수용적인 힌두마을들에서는 10~20명씩 회심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 때마다 선교사가 직접 가서 세례식을 집례하길 원했다. 하루는, 세 시간을 버스로 가서 한나절 더 걸어야만 하는 지역교회의 세례식이 있었다. 아침 일찍 숙소에서 출발하여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도착했다. 오랜만에 선교사가 왔다고 온 마을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고, 저녁식사로 카레 국물에 통째로 삶은 개구리를 쥐서 먹는 시늉만 하였다. 그날 밤, 비가 많이 내렸다. 갈대로 만든 단칸방에 현지인 교역자들과 함께 누웠지만 물이 스며들어 진흙을 바른 방바닥은 진흙탕이 되었다. 종일토록 걸었고, 제대로 저녁도 못 먹고, 샤워도 못 하고, 잠도 자지도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현지교역자들이 세례 받을 교인들을 교육하고 문답한 후 마을 앞 작은 저수지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기념사진을 찍은 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을 재촉하였다.

방글라데시의 날씨는 연중 5월 말이 가장 덥고 습하다. 이런 날씨 속에서 몇 시간을 계속 걸어 왔는데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지인 동행자로부터 저기만 돌아가면 버스 정류장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으나 정작 버스정류장은 나오지 않았다. 날은 폭폭 찌고 지난 밤 부터 먹지도 자지도 못 한 상태로 예배와 세례식을 인도하고 장시간을 걷고 있는데, 마실 물마저 떨어졌다. 당시에는 그 흔한 사이드, 콜라도 구할 수 없어서 플라스틱 통에 식수를 담아서 다녔는데, 식수가 떨어진지 이미 오래였다. 탈수 증상으로 전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여 잠시 쉴 곳을 찾았다. 올라오던 길에 수십 마리의 독수리들이 죽은 소를 뜯어 먹던 곳을 봤었는데 그 근처에 나무 그늘이 보였다. 배가 풍선처럼 부어오른 채 죽어 있던 소가 하루 사이에 앙상한 뼈만 남아 있고, 주변이 음산한 그곳의 나무그늘에 앉아서 겨우 쉴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는 소리가 들려왔다. 반사적으로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깨달음이 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의 소리가 들렸다. ‘아침에 세례 한 현지인들을 네가 전도했냐? 네가 양육했냐? 그런데 세례식을 네가 왜 집례 해? 거꾸로 했어야지? 힘들게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은 네 일이고, 세례 베푸는 일은 현지 교역자의 일이었잖아? 현지인들에게 세례식을 인도한답시고 그리도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힘든 일은 현지인들에게 다 시키고, 정작 너 자신은 전도도 안 하고, 양육도 안 하고,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먹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가는 곳마다 선교사라고 인사 받고 현지인들이 거둔 결실도 가로채고 있잖아? 도대체 네가 한 게 뭐냐? 현지인과 교역자들을 지원한다고? 지역교회를 건축하고 현지 신학교를 지원하고 건축한다고? 그래, 그 돈들이 네 돈이나? 교회 헌금 전달하고 교회 선교비 전달하면서 돈으로 부리고 현지인들을 믿지도 못해서 설계도 직접 하고. 건축자재도 직접 사서 나르고 감독하느라 눈은 형사 눈이 되어서는 자지도 먹지도 않고 돌아다니고 있잖아? 정작 복음이 필요한 1억이 넘는 방글라데시 모슬렘들과 수천만의 힌두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하면서. 복음을 받은 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국원조만 바라는 인구의 0.01%도 안 되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속에 안주하고 쌀과 옷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학교, 우물, 병원을 세워주면 세례 받고, 믿는 척하다가 지원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부족민들에게 우물 파주고 지어주고 치료한다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생활비 못 받으면 주일예배 인도도 안하는 기존 교회안의 교역자들을 지원하고 훈련한다고 모아서 밥 먹이고 재우고 강의하고, 전도자 후원이란 명목으로 돈 나눠주는 것을 무슨 큰일이나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정작 복음을 들어야 할 1억 6천만 명의 방글라데시 모슬렘들과 힌두교들을 위해서는 뭘 하고 있느냐? 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동안 모아 놓고 밥 먹이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건물 짓고, 한국교회 건축 시킨다고 돌아다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영적맹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다. 정작 나 자신은 전도도 안하고, 말씀도 안 먹고, 기도도 안하고, 돈으로, 강의로, 설교로, 현지인 교역자들을 동원하여 그저 많이, 크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라고 잘못 생각하던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나에게 그날 오후, 그 자리는 사울의 눈에 씌운 비늘을 벗겨주신 다메섹 도상이었다. 그날 나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선교라고 믿고, 나의 열심과 나의 감정, 동정으로 일해 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

숙소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숙소에 돌아와서 방글라데시 지도를 다시 펼쳤다. 몇 개의 도시와 일부 부족 거주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 전도자도, 선교사도, 교회도 없는데 기존 방글라데시 교회들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웠다. 그러던 중에 기독교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북서부 찰마리 지역을 보여 주셨다. 이 지역은 극렬 이슬람주의자들과 강한 힌두교 지역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난으로 방글라데시에서는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지역이다. 수도 다카에서 불과 430km 떨어진 찰마리까지 이동하는데 꼬박 3일이 걸렸다. 강폭이 10km가 넘는 브라마푸트라 강을 배로 건너고, 직행버스가 없어 구간 마다 로컬 버스를 갈아타고 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지막 십여 킬로미터는 걸어서 찰마리에 도착했다. 처음 보는 찰마리는 그 어느 곳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 인구 20만 명의 군청 소재지라고 하는데, 한 번도 의사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태반

이고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몇 명뿐이라고 했다. 주민 대부분이 하루 한 끼로 연명하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찰마리에서의 첫날밤은 을씨년스럽고 추웠다. 해가 진 후 강가 모래밭에 1인용 천막을 치고 잠을 청했지만 한잠도 이룰 수 없었다. 처음 보는 외국인과 천막이 신기하였는지 밤새도록 내 천막 주변을 떠나지 않고 웅성거리는 사람들, 각혈하며 기침 하는 폐병환자들, 괴성을 질러대는 정신병자들 때문이었다.

찰마리 첫 사역은 지역 지도자들과 청년들에게 외부세계를 알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에 그들 스스로가 나서도록 격려하며,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슬람 주민들과 친분을 쌓아 가는 일이었다. 현지인들의 반응은 차갑고 공격적이었다. 사역장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외국인에게는 땅을 팔려 하지 않았다. 어렵게 구한 토지는 지대가 낮아서 수시로 물에 잠기고 자재를 사다 놓으면 훔쳐갔다. 피를 빼서 외국에 판다며 환자들을 못 오게 하고, 기독교인으로 만든다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예배드린다고 돌을 던지며 몰려와서 데모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처형하는 모슬렘식 마을 재판에 선교사들이 끌려가기도 했다. 전기가 없는 지역이라서 덥고 습한 밤낮을 전등과 선풍기 없이 견디기도 했고, 외부와 통신 하려면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나가 하루 종일 기다려야 겨우 외부와 연락할 수 있었다. 마을을 지나가면 주민들이 슈코레르 밧자(돼지새끼), 빠그리(미친년), 빠골(미친놈)이라고 놀렸고, 수령에 차가 빠져도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된 찰마리 사역이 어느덧 28년의 시간이 흘렀다.

맨손으로 땅을 파고, 지어 날라 사역장 부지를 높이고 기본 시설들을 세워가며 진행해온 찰마리 사역은 지역교회, 시범농장, 농군학교, 신용조합, 병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원, 자립마을 등으로 확장되었다. 기독교 학교라며 자녀들을 보내지 않던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지역에서 전국 상위 5% 안의 학생을 배출하는 명문학교가 되었다. 사역장에 전기를 끌어오면서 주변마을에도 전기가 공급되어 컴퓨터와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청년들과 마을 지도자들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들이 사역장에 와서 훈련받고, 병원과 이동진료소들에서는 연평균 20,000여명의 주민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고낙후 지역인 찰마리군의 생활지표가 바닥에서 200계단 상승하였고, 군 내 27개 상당 월평균 40명이었던 주민 사망률도 자연사 외에는 제로로 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 출신 모슬렘, 힌두 출신의 개종자들로 두 개의 지역 교회가 세워지고 자립선교를 목표로 진행되어온 이 지역 사역들의 전면에 현지인들이 나서게 된 것을 감사한다.



## 2) 다카, 울리빨 지역

방글라데시에서 첫 3년간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 사역분야, 사역지 선정의 원칙으로 세운 '현지교회가 없고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 사역한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절실하고 꼭 필요한 사역으로 한다' '한인 사역자들과 한국교회가 누구보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글라데시의 문화와 경제 중심인 수도 다카시에 음악학교와 봉제기술 훈련원 사역을, 악성피부질환과 한센병 환자가 많은 울리빨군에 한센인 재활훈련원과 교육, 의료, 지역개발 호스텔, 언졸리 자립마을 사역지로 선정하였다.



### (4-2) 평소 선정된 선교지에 대해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이해-선교지에 대한 前이해(pre-understanding)-하였습니까?

외부 세력에 대해 배타적이고 강한 이슬람교와 힌두교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로 기독교 복음을 접하거나 듣지 못하고 방치된 채 가난, 오랜 식민지 통치와 거듭되는 홍수 등의 자연재난, 외부 원조로 연명해 오는 동안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 의타심과 체념주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다혈질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친절하지만 종교, 경제 문제 등으로 이해가 나눌 때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난폭해지고 거짓말, 뇌물, 각종 부정이 통용되는 사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 선교사역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선교 대상을 만나 본 적이 있는지?

방글라데시에 온 첫 3년간 현지어 공부, 선교지, 대상 선정 등 구체적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 현지인 주거지역에 살면서 매일 일과로 여러 시간씩 시내를 걸으며

사람들을 만나고 편도 3일씩 걸리는 다카-필마리를 수십 번 오르내리며 강가 천막, 현지인 집, 군청 게스트 하우스 등에 머물며. 파리가 들끓는 현지 식당에서, 씻지 않은 바나나 외에 맨발을 올려주는 현지 음식 매식하며 다양한 선교 대상들과의 교류 하는 시간과 기회 폭넓게 가졌다.



**(4-3) 선정된 선교지의 주된 선교 대상은 누구(예: 한인교민, 원주민, 상류층, 빈민층, 아동청소년, 장년층 등)이며, 궁극적인 선교대상과 그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 주 선교 대상 :

1) 지역의 모슬렘, 힌두교들도 중에서 선발되어 KDAB 병원, 학교, 농장, 훈련원, 자립마을 등에서 사역하는 현지인 전임직원들과 사역의 집적 수혜자들인 학생, 훈련생, 환자, 조합원 등.

2) KDAB 사역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자가족, 학생가족, 훈련생 가족, 조합원 가족 등의 지역주민.

- 목적 :

동 사역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모슬렘, 힌두교 출신 회심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직. 간접 수혜자들인 지역의 모슬렘과 힌두교도들이 복음에 반응하며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파송 과정 :**

1983년 5월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헌신한 그 주일 저녁, 담임하던 교회로 돌아가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갈 것을 알리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지만 소속 교단, 정부 등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교단 선교국은 해외선교사 파송에 무관심했고, 당시 감리교단의 감독이던 아버지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또한, 외무부 여권과는 신청서를 여섯 차례 반송하며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았다. 후원교회와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방글라데시로 떠날 날짜를 정하고 짐을 싸놓고 동분서주하며 보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서울 강남 제일(현, 임마누엘)교회의 연락을 받고 금요일 아침 일찍 상경하여 담임목사를 만났다. 그 다음 날 저녁

후원자들인 선교회원들을 만난 뒤, 그 주 주일 저녁(1984년 4월 29일)에 파송예배를 드렸다. 여권을 신청한지 일곱 번 만에 6개월 단수여권을 받아 아내와 3개월 된 아들을 한국에 남겨두고 단신으로 출국하였다. 그리고 태국 방콕에서 1개월 입국비자를 받아 방글라데시에 입국할 수 있었다.

**(5-1) 파송 교회, 교단 선교부, 선교회 등의 후원 여부, 후원 과정 등을 소개해 주십시오. 아울러 선교지역 또는 소속 선교부 등이 변경된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선교지역이나 교단 선교부가 변경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교단 선교부의 지원 없었고, 파송교회의 단독 후원으로 첫 10년 동안 월 600불, 다음 10년간 월 1,000불의 생활비 지원과 기도후원 있었다. 선교 20년 차 이후에는 선교 이해와 방법 차이로 파송교회 소속 스스로 사임하였고 후원이 정지 되었다.

**(5-2) 파송과정에서의 어려움, 즉 비자, 선교비용, 가족과의 관계, 파송교회 또는 선교회 등과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아내와 나의 결혼반지와 아내가 사준 중고 자동차 팔고, 파송교회의 현지 정착금 3,000불 지원 등으로 파송 과정에서 선교 비용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 아내는 평소에 선교사들의 후원자였고 선천적으로 성격이 낙천적이며 언제나 내 결정을 전적으로 응원해주었다.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은 방글라데시에서 몇 달 못 버티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모양인지, 아내와 아들을 두고 혼자서 먼저 간다고 하니 별 반대가 없었다. 파송교회는 교회의 첫 번째 해외 선교사 파송이라는 기쁨에 온 교회가 진심으로 축복하여 주는 등 여권과 비자 발급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었다.

### 3. 정착

**(1) 선교지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나거나 또는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을 소개해 주십시오.**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 여권 발급과 입국 비자를 받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현지 교단장 초청장 등 여권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반송되었다. 서류상 하자를 찾을 수 없어 똑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반송 당하기 일곱 번째 되던 날, 외무부의 여권과 담당자에게 불려가서 논쟁하던 일이 있었다. 중동 공관에서 일하다가 본국 여권과로 돌아 온지 며칠 안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전임자가 내 서류를 다섯 차례 반송한 기록이 있는 서류인데 다시 들어와서 반송하였다고 했다. 그랬더니 다음 날 똑같은 서류가 다시 제출되어 불렀다며 날 세워둔 채로 자신은 의자에 앉아서 고압적인 자세로 말했던 기억이 난다. “관공서 상대로 장난하는가? 국익에 위배되게 이슬람 국가로 왜 가려하는가? 혹 여권을 받아 미국 등 다른 나라로 가려는 것 아닌가?” 등 거침없는 말

을 쏟아 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당신이 외교관 맞는가? 무엇이 외교이고 무엇이 국익인가? 우리나라 국교가 불교라면 조계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외교고, 대한민국의 발전의 뿌리에 기독교가 있다면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외교이며 국익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박 정희 정부가 서울 한복판에 대형 모스크 허락한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외교적 판단 때문이 아니었나?” 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할 말을 잃은 그는 “오래 있지 말고 빨리 다녀오세요.” 라고 하면서 6개월짜리 단수여권을 내주었다. 6개월짜리 단수 여권으로 태국 방콕에 도착하여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비자 신청하고 15일간 기다리는 우여곡절 끝에 한 달 입국비자를 받아 방글라데시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한 즉시 다카 국립대학교 벵골어학과에 입학하여 비자 연장을 했지만 6개월짜리 단수 여권을 장기 복수 여권으로 바꾸기 위해 한국외무부 여권과 직원과 비슷한 성향의 한국대사관 영사과 직원을 설득하느라 애태워야만 했다.

**(2) 현지에 도착하여 한국 대사관, 한인 교민회, 다른 선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으신 것이 있으셨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처음에 도착해서 2년간은 한인들과는 거의 교류 없이 지냈다. 당시 한인사회는 공관을 포함해서 전체가 100명이 안되던 때였는데, 소수의 한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지만 설교자가 없어서 녹음테이프를 설교 들으며 예배드리고 있었고 주일 하루 만이라도 자신들의 교회를 섬겨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담임목사가 올 때까지 만이라는 전제 하에 지금의 다카한인교회를 2년간 섬기는 동안 KDAB를 구상하며 준비하는 일에 동안 많은 도움을 교민들로부터 받았다. 그중에서도 당시 한인교회 집사 서 건이 대사(당시 참사관)와 정 용성 집사는 KDAB창립 멤버로 들어와 한국 새마을운동 관련 등 많은 자료를 공급해주었고, 사역을 막 시작할 즈음에 서구선교사들을 추방하는 등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국교 선언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주재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해줘서 KDAB가 방글라데시 최초 한국 NGO로 허가 받을 수 있었다.



2. 현지 도착 후 방글라데시 언어를 배우고 서구 선교 현장을 연구하며, 방글라데시 선교 1세대로 35-40년씩 선교하고 1986~7년 사이에 은퇴하는 노선교사들을 찾아

다녔다. 출신국가, 교단, 소속 선교회는 다르지만 바턴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여겨 초임 선교사를 위한 조언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동양에서 온 낯선 초임 선교사에게 자신이 가장 중요시 여긴 평생의 중점 사역을 아낌없이 전수해준 고마운 선교사들이 있었다.

1) 뉴질랜드 침례교선교부 파송 ‘에버리목사’ :

그는 방글라데시 BBS 교단의 수많은 사역들을 확장시켰고, 은퇴 후 본국에 돌아와서 고향 교회를 섬기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다카의 외국인들을 위한 다카국제교회(DIC)의 담임목사로 몇 년간을 더 목회하다 은퇴하였다. 에버리가 방글라데시에서 40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일은 ‘엘리야스’ 라는 모슬렘 청년 한 명을 전도하여 양육시킨 일이라고 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분이 구세주다’ 는 말이 적힌 전도지를 보고, 이런 것을 만들어 돌리는 사람들을 처형하겠다고 찾아 온 청년 엘리야스를 전도했고, 훗날 이 청년은 그 부모에 의해서 납치돼 온갖 회유, 감금, 죽창으로 찌르는 고문을 당하다가 독살 직전 그 어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도망쳐 평생 동안 모슬렘들과 힌두교들에게 벉골어 성경과 전도지를 보급하였다. “나의 40년 방글라데시 선교사역의 열매는 ‘엘리야스’ 형제 한 사람입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며..., 사역을 막 시작하는 나에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라고 말했다.

2) 미국 하나님의 성회 파송선교사 ‘월슨목사’ :

그는 방글라데시에 와서 첫 15년간 Every Contact Home이란 NGO를 만들어 가난한 가정들이 대나무 바구니, 수예품 등을 만들어 팔게 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 후 15년간 연극배우인 ‘스미스 어디까리’ 란 청년과 모슬렘에서 천주교로 개종해 있던 파카스탄 출신 '아샤케인' 등 두 명의 현지인을 전도 양육하는 데에 전념하였다. 또한 은퇴할 때까지 남은 10년 동안 이 두 현지인 전도자들의 영적교사가 되어 오늘날 방글라데시의 최대교회를 이루고, 전국에 수많은 지역 교회들과 신학교, 일반학교 등을 섬기는 다카 AG 교회의 두 명의 현지인 목회자들을 키우고 후원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방글라데시를 떠날 때까지 오후가 되면 아낌없이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를 하면서 “나의 40년 선교는 두 사람이었다” 고 말했다.

3) 미국 북침례회 파송의료선교사 ‘월슨’ :

40년이 넘도록 부족 전도, 의료선교, 문서선교로 섬긴 월슨 선교사는 주변 모슬렘들의 끊임없는 테러 공격을 감내하며 당시 다카에서 항구도시인 치타공까지 10이간이 넘게 걸리고 다시 산속으로 5시간 이상 걸리는 오지 사역장과 방글라데시 수도 중앙정부 사무실을 수 없이 오르내리며 설립한 마룻갓 병원을 통한 의료사역과 치타공지역 소수 부족들을 위한 성경번역과 문서사역 등 그의 평생 사역과 팀

사역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다.

4) 미국 장로교 파송 의료선교사 ‘카딩턴’ :

주한 의료선교사로 1949년부터 1978년까지 한국에서 결핵사업과 광주기독병원 설립 등 활발한 의료사역을 하다가 1979년 방글라데시로 건너와서 2006년까지 의료선교사로 섬기다가 피부암으로 별세 한 카딩턴은 우리 부부에게 그 누구보다 더 친절하게 현지사역을 안내하고 현지교회 지도자들 소개해 주었으며, 간호사인 아내가 병원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직접 도와주었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구제하고, 섬기고, 치료하며, 전도하는 선교사의 삶을 몸으로 가르쳐 주었다.

**(3) 현지에 도착하여 현지인, 선교 대상들과 어떻게 접촉하였으며, 이후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셨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 방글라데시 북부 찰마리로 올라가는 길에 꾸리그람 도지사 집을 방문하였다. 찰마리로 들어가기 원하는 이유를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소개로 찰마리 민선 군수 등 지역 관리들 접촉할 수 있었고, 그 후 수도 다카와 찰마리를 수십 차례 오르내리며 지역 주민들에게 절실한 이동진료, 수혜복구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민들과 폭넓게 접촉하였다. 찰마리 군수에게 한국의 새마을지도자 훈련을 주선하였고, 생전 처음으로 해외연수 받고 돌아 온 찰마리 군수 쇼꼴알리씨는 우리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섰고, 이 지역 출신 중앙정부 고위관리는 자신의 토지 5만평을 무상 제공하였지만 정치적 중립과 지배층의 지원을 받는다는 인식을 지역민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 그들의 친절과 호의를 어렵게 거절하였다. 또한 어떤 이권 개입이나 차별을 두지 않았다. 이동진료로 시작된 의료 사역과 성 진료, 그리고 몇몇 주변 아이들을 모아 시작된 초등학교,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소개하며 지역 청년들을 모아 시작된 찰마리 가나안농군학교 등을 통하여 지역의 이슬람, 힌두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기 시작했다. 다카 지역 역시 89년 개교한 다카음악학교, 봉제기술학교 등을 통하여 접촉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통해 나갔다.



**(4) 현지에서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있으셨다면, 그 만남의 계기, 지원 또는 협력 과정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다카에서 도착해서 다카시내에 월세로 숙소를 얻었는데, 집 뒤에 윌리엄케리 기념 교회가 있었고 기독교인들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했다. 그래서 주변에 현지교회 지도자들이 가까이 살고 있어 나의 숙소에서의 기도모임 초청에 응한 방글라데시 성서공회 총무 엘리야스, 다카 임마누엘교회목사로 후에 CCTB학장이 된 사이몬, CLB 디렉터 스티븐, 첫 3년간 나의 서구선교 현장 연구 전임조력가인 문치 씨 등이 현지인 동역자들이다. 스티븐과 사이몬 소르까르 목사는 교회개혁, 교역자 및 신학생 지원 사역을 도왔고, 엘리야스의 후임으로 성서공회 총무가 된 문들은 1988년에 시작한 방글라데시 발루까 기도원, 다카연합교회와 목회자 훈련원 사역을 위한 아가페선교회 사역 등을 도왔다. 그리고 당시 다카한인교회의 서건이, 정용성집사와, 1986-7년 사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의료선교사 강원희장로, 한방친선협회 간호사 장성희 선생 등 네 사람과 우리부부는 출신, 교파가 다르지만 매일 만나서 방글라데시 선교에 관한 정보를 나눴다. 그러던 중 1987년 5월 강원희, 장성희선생이 현지어 3개월 과정 끝낸 것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간 남부해안 콕스바자에서 KDAB 전신인 가칭 방글라데시선교회(KMB)라는 이름으로 연합선교회 설립을 결의하였다.

**(5) 선교지 현지의 공식 언어와 선교 대상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선교 현지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선교대상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언어 조력자의 유무, 언어교사 또는 언어 학교 등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벙골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카대학교 벙골어학과에 입학하여 3년간 방글라 디폴로마 과정을 마쳤다. 하지만 잦은 데모와 종교 명절 등으로 수업을 안 하는 날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당시 서구선교단체들이 연합으로 만든 현지 NGO 단체인 HEED가 운영하는 언어학교에도 등록하여 벙골어를 공부했다. 처음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어려워서 현지인 개인교사의 도움을 받았고, 현지어 성경, 신문 읽기를 계속하였다.

## **(6) 정착 및 생활**

**(6-1) 현지 생활에 관한 준비 및 적응(숙소, 생활비, 생활용품 등) 과정을 소개해 주십시오. 환경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파송 당시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들이 있었고, 현지정보, 숙소, 생활용품 등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단신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생활용품 등 한국에서 가져간 것 없었다. 날 위해서는 그저 몸 하나만 누울 수 있는 침대와 그릇 몇 개면 충분했고, 식사는 라면이나 맨밥에 매운 고추 한 개 또는 현지식당에서 매식하였고 불편하지 않았다. 6개월 후 아들과 아내가 올 때는, 당시 방글라데시를 떠나는 한인들

이 사용하다가 싸게 파는 것 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마련했다. 숙소는 외국인 거주지에서 떨어진 현지인 주거 지역에 월세로 얻었다. 집주인인 모슬렘 3 형제가 각자의 부인 2 명 사이에서 출생한 여러 명의 자녀들과 함께 사는 건물 아래층이었고 그들은 외국인이 자신의 집에 세 들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늘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처음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없었다.

## (6-2)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아들은 1살에 방글라데시에 왔고, 둘째와 막내는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다. 방글라데시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방글라데시의 학교들은 이슬람 교육을 시키고, 다카의 외국인 학교는 비싼 학비를 감당 할 형편도 안 되지만 보낼 마음도 없었다. 자녀들을 등·하교 시킬 수도 없어서 서양 선교사 부인 몇몇이 10살 미만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시작한 모하마블의 작은 학교 옆으로 이사했다. 전교생이 30여명인 이 학교에서 10살까지 공부하게 했고, 10살 이후에는 같은 문화권인 인도 남부의 코다이카날 국제학교(KDIS)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시켰다. 처음 인도의 학교로 보낼 때 KDIS교장에게 간단한 내 소개와 아들 말길 학교를 찾고 있는데 ‘당신은 누구냐?’ 고 묻는 편지를 보냈다. 몇 줄 안 되는 황당한 편지였을 텐데, 자신도 MK이고 인도선교사 자녀로 자라 본국인 미국대학에서 교육학 전공하고 인도로 돌아와 교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과 같은 친구 두 명이 있는데 한명은 교목이고 다른 한명은 교사라고 했다. 그의 답장에 무조건 당신 학교로 보낼 것이니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장학금을 주는 등 특별 배려로 첫째는 인도에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와 웨슬리신학대학원 거쳐 샌디이고 UMC EM 목사로 사역하고 있고, 둘째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시카고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으며, 막내딸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다.



## (6-3) 사모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사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셨는지요?

아내는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후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일과 벙골어 공부, 자녀들이 유치원에 들어간 이후에는 간호사로 현지 선교병원에서 봉사하였고, KDAB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부터는 한인선교사들의 벅골어 교육 등의 사역을 18년간 섬겼다. 2002년 이후에는 10살부터 부모를 떠나 생활하며 외로운 사춘기를 보낸 세 자녀들의 학업 뒷바라지와 선교회 지부사무실 업무관리, 생활비 마련과 남편을 후원하기 위해 병원, 가정방문 간호센터 등에서 일하는 등 1인 3역을 감당하고 있다. 아내는 긍정적이고 단순하고 명량한 성격이어서 선교일이나 가정일로 갈등하거나 의견 충돌한 기억이 없다. 2002년 이후 긴 시간을 기러기 부부로 지내고 있지만 피차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내는 것 늘 감사하다.

**(6-4) 현지에서의 건강관리(풍토병, 질병 등) 또는 극복 비법이나 사례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처음 방글라데시에 도착하면서 30세에서 50세의 인생 중간부인 20년간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을 기도했다. 어려서부터 만성중이염과 편도선염 등의 질병은 있었지만 방글라데시에 온 20년간 특별히 아픈 적이 없었다. 그러나 만 50세부터 고혈압, 폐렴, 세 차례의 멩기열, 중이염, 치주염, 골절상,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부상 등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하였다. 건강관리를 위한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큐티, 소속 사역자들과의 아침예배 후 집단 체조로 시작하고 주 6일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업무에 충실한 후 종례 기도모임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는 규칙적인 생활을 처음부터 오늘까지 30여 년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늘 카메라를 곁에 두고 주민들의 얼굴, 동·식물, 풍경 사진을 촬영하는 등 사역과 관련된 취미 생활로 정서관리를 한다. 사역 특성상 여러 사역장을 순회하며 사역을 하다 보니 여러 개의 사무실과 책상을 사용하며 늘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기분이 이어서 지난 32년간 지루하다는 느낌이 없었다.

**(6-5)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려움-해결해야 할 과제, 고민 등-은 무엇이었습니까?**

1) 다행히 현지 문화와 종교에 대한 문화 충격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본국 교회와 지도자들에 대한 역 문화 충격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영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행 중 한국을 경유할 때에도 입국하지 않고 인천 공항 안에서 22시간 동안 대기하는 등 가능한 한국방문을 기피하였다.

2) 그렇게도 닳고 싶지 않았던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과 CEO 들의 독재성과 카리스마가 나에게도 똑같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부드러움을 소유하는 일과 일종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3) 사역의 운영권을 이양했어도 여전히 모든 것을 의존하려하는 현지인들의 만성적 의타심 지우고, KDAB 설립자라는 나의 이미지와 기억을 지우는 일이다.

(7) 선교지 정착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면서 겪은 어려움을 소개해 주십시오. 또 이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 처음 1년간, 비자와 노동허가가 없어서 은행구좌를 개설하지 못하여 송금을 받지 못했다. 정착금으로 가져온 3,000불로 장기 월세를 계약하고 6개월 분 집세를 보증금으로 내고 가구 등 생필품 몇 개 구입한 후, 몇 달을 살고 나니 남은 것이 없었다.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어린 아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 한 여선교사가 두고 간 짐 속에 있던 파랗게 곰팡이가 핀 마른국수를 빨고 또 빨고 말려서 아이만 먹이며, 주위의 한인들과 선교사, 본국 가족이나 후원교회에 알리거나 꾸지 않고 금식기도 하는 심정으로 버텼다. 그 당시 15Kg 이상 살이 빠졌다.

2) 현지 도착하자마자 둘째를 임신한 아내가 입덧하며 요리책 보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데,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럴 때마다 아내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 길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수많은 도시 빈민들이 누워 자는 다카 시내의 밤거리를 걷다 들어오곤 했다.

3) 처음 다카대학교 학생 비자기간이 끝나고 단체설립을 준비하는 동안,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국경을 넘어갔다와야 했었다. 어떤 때에는 정신없이 지내다가 비자 기간이 끝난 것을 당일에 발견하고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부랴부랴 가방 하나에는 여름 옷, 다른 하나에는 겨울 옷가지를 담아 무작정 공항으로 가서 방글라데시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들 중 더운 인도 콜카타나 추운 네팔의 카투만두 중에서 좌석이 구해지는 곳으로 오가며 비자 연장위해서 가슴 조리던 기억이 생생하다.

4) KDAB 사역을 막 시작 했을 때, 매일 아침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주민들이 몰려와 돌을 던지며 항의하던 일. 외국인 소유나 외국 단체의 돈과 물건은 훔쳐도 된다고 인식하는 듯 이러한 일에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용인하여 집을 지으려고 자재를 사다놓으면 밤새 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공사용 모래까지 퍼가는 도둑을 경비가 잡아 아침까지 가둬 두었다고 주민들은 데모하였고 이 사건을 이유로 선교사들이 끌려가 이슬람식 마을 재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8)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선교지에 대한 인식이 선교지에서 현지체험을 한 후 달라진 것 또는 사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대한 인식이 바뀐 사례가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처음 몇 년간 방글라데시의 교회들을 지원하고 가난한 교역자, 신학생, 교인들을 돕는 일이 최우선이라 생각하여 현지교회 건축, 교역자 및 신학생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했었다. 그러나 현지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 원조만 바라고 설교, 예배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듯 했다. 교회 안에 교제만 있고 말씀, 헌신, 전도, 헌금 생활도 없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도 기존 교회를 돕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만 모슬렘들에게 전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랜 서방교회의 원조를 받아 온 현지 목회자들은, 월급이 늦어지면 그 주일 설교를 하지 않았다. 교인들은,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 한 가족이 서로 다른 교단의 교회에 등록하였다. 한 교회에서 구호물자를 나눠주면 가족 전체의 구호품을 받고, 또 다른 가족이 등록한 교회에서 다시 가족 수 만큼의 구호품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2) 모슬렘들보다 현지인 기독교인들을 믿을 수 있다고 여겨 선교부 내의 재정관리 등 중요 업무는 모두 기독교인들에게 맡겼다. 그러나 빈번히 재정사고를 내고 몸으로 하는 일을 싫어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현지인들이었다. 모슬렘 국가의 선교회들과 선교사들이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고 전체 인구의 85% 이상 차지하는 모슬렘들과 같이 생활하고 사역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찌 그들과 소통하고 전도의 기회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현지교회 목회자를 제외한 학교, 병원, 훈련원, 농장 등의 전체 사역장의 전임직원 대부분을 모슬렘, 힌두교도들 중에서 영입하여 현재 102명의 현지인 전임사역자들의 종교 분포가 모슬렘 80%, 힌두 12%, 기독교 신·구교를 포함하여 8%이다.



3) 처음에는 국제선교회들과 기독교 NGO 단체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현지교회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현지교회를 돕기 원한다면 재력과 능력을 갖춘 선교회들과 기독교 NGO들 스스로가 현지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독립 전 방글라데시 지역에는 비록 적은 수였지만 현지인 기독교인들과 지역교회들이 있었고, 훈련된 목회자들이 있어서 서방세계의 다양한 구제활동들도 현지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독립 전쟁의 참상과 이 지역의 대형 자연재난과 기근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수많은 서방선교단체들과 기독교 NGO들이 앞 다투어 진출하게 되면서 지역교회가 주관하던 사회사업과 구제사업들이 조직과 능력을 갖춘 선교단체들과 NGO들에 넘어갔다. 현지교회 지도자들도 월급이 많은 서방 NGO로 옮겨가면서 지역 교회는 목회자도 없어지고 선교사들도 NGO로 가고 교회 일에 자발적이던 청년들도 앞 다투어 NGO로 자리를 옮겨 서구 선교단체들과 기독교 NGO 활동이 확장될수록 지역 교회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 지역교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만성적 의태심의 늪에 빠지게 되었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선교비가 투자되었지만 현지 교회는 오히려 더 연약해지고, 영적 기갈과 Mission = Money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현지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단지 돈과 직업, 부모의 혈통 유지, 지위 향상, 단순한 종교 행위를 행함으로 위로 받기 위한 것 등으로 전락하고 “예수는 빠지고” 세상적인 요구들만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KDAB를 포함한 기독교 NGO들과 선교단체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경험과 재력으로 군림해 온 일들을 회개하고 현지교회 안으로 들어 가야한다.

**(9) 선교 사역 중에 “이제야 선교가 되는 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사건 또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 처음 10 년 동안 현지교회 지도자들과 현지인 직원 등의 현지 지인들이 나를 찾는 이유의 대부분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거나 취업을 요청하기 위한 일이었다. 20년 이 지날 즈음부터는 가정 문제, 신상문제, 지역문제 등이었고 최근에는 모슬렘, 힌두교인으로 살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신앙문제를 털어 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 모슬렘들이 몰려와 다 부수는 등 난장판을 만들거나 떼강도가 들어와 훔쳐가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선교사만 남겨두고 다 도망가고 발뻘하던 현지인들이 자신들의 사역들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문제들의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본다.

-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 왔다고 그렇게도 어렵게 하고 방해하던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선교사들 같이 무슬림 지역에 들어 와 교회 건물부터 짓지 않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묵묵히 담당해 주어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 처음 우리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며 빠골(미친놈), 빠그리(미친년)이라고 놀리며

따라다니던 동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KDAB는 찢마리 군민들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지역사람들이 많아졌다.

-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KDAB가 시작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고 피를 뿜아 외국으로 가져간다면 환자들을 병원에 보내지 않던 주민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진료를 받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본다.

- 선교회 재정이 바닥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모슬렘, 힌두교인들이 주축인 현지인 직원들이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들의 급여를 줄이고 보너스를 반납하는 것을 본다.

- 현지인 사역자들이 선교회가 운영하는 병원, 학교, 농장, 훈련원 등의 사역의 운영 전담하고 한인 사역자들은 행정, 재정관리 업무 내려놓고 양육,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본다.

- 성경을 만지거나 교회당에 발을 디디기만 해도 지옥에 간다고 믿어 온 모슬렘, 힌두교 직원들이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적용하려 애쓰며 최근 건축된 교회당에 거부감 없이 드나드는 것을 본다.

- 교회 안에만 머물던 찢마리, 올리벨 교회 현지인 담임자가 모슬렘, 힌두교인을 대상으로 개인전도 시작하고 몇 명 안 되는 지역교회 교인들이 말씀공부, 헌금생활, 개인전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이 폐쇄되고 완고한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가 된다고 생각되어 감사하다.



#### (10) 선교 사역 기간 중 안식년은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소속 선교사들에게 현지 사역 6년 후 1년간의 안식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선교보고와 주로 WAC, WBT, CCC, IMB, OMS 국제 본부들과 스텐포드, 옥스포드, 캠브리지, 웨스턴 신학대학원 등 견학, 관계자 면담과 선교 연구 기간으로 활용하였다. 만 50살 이후에는, 안식년 대신 연 2개월간의 안식 월을 얻어 떨어져 지내는

가족과의 휴식, 강의, 한국 및 해외 지부 사무실 업무를 지원하는 일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11) 선교현지에서 현지의 문화(의·식·주 등)를 어떻게 받아 들이셨습니까? 현지의 생활문화를 받아들여 그들과 유사한(또는 같은 방식) 생활을 하였는지 아니면 한국적 생활방식을 고수하셨습니까? 나아가 영주권, 시민권 등을 취득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택하셨는지요?

현지 음식이나 복장, 주거환경 등 현지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현지 중산층 수준의 주거생활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현지음식, 복장,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일이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외국인들과 부유층 주거지역에서 살지 않고, 지난 32년 동안 현지인들과 같이 사용하는 선교 사무실 옆방이나 사역장 안의 공동숙소 생활을 고수하였다.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은 밤새도록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관여하지 않는 현지인들의 소음문화와 주변의 모스크들에서 기도시간을 알리는 대형 확성기 소리, 수백 수천마리가 몰려다니며 울어대는 까마귀 소리 등에 적응하는 일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얼마가지 않아 나의 한 쪽 귀가 못 듣게 되어서 시끄러울 때는 돌아누우면 해결되게 하였고, 사역장과 내 숙소 사방에 세워진 모스크들에서 어김없이 들려오는 아잔 소리는 고마운 새벽 알람소리가 되었고, 아우에게 빼앗기고 광야로 쫓겨난 이스마엘과 에서의 울부짖는 연민의 노래가 되었다.



처음에는 방글라데시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뼈를 묻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방글라데시에 투자이민 외에는 외국인 시민권제도가 없어 한방의원친선협회 소속의 방글라데시 국회의원들과 30년 지기 친구인 방글라데시 법무부 장관이 나의 명예시민권 추서를 추진한 일이 있었다, 혼란한 국내 정치와 관계자들의 갑작스런 실각으로 이일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는 현지인들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계속하거나 그들의 일들을 빼앗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점점 허물어져 갈 나의 육신의 짐을 현지인들에게 지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날, 30여 년 전 이곳에 혼자 올 그때처럼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소리 소문 없이 떠날 날 수 있게 해 주시길 기도한다.

#### 4. 사역

(1) 현지 문화 및 종교와의 접촉 또는 이해, 선교사역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선교 전략 또는 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도출하고 사역을 진행하셨습니까?

1) 모슬렘과 힌두교도들은 성경을 사람들이 기록한 불경한 문서이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이라고 배우고 믿어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독교식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는 식의 전통 기독교 방식으로 전달하면 그들은 마음을 더 굳게 닫고 듣지 않는다. 때문에 기독교식 표현이나 종교 언어를 철저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이슬람교식 체념주의나 힌두교식 운명론과 전혀 다른, 문제를 극복해가며 땀 흘려 일하는 개척정신과 주인 정신을 강조하고, KDAB가 운영하는 사역장에서 일 할 현지 직원을 선발할 때는 타 지역 출신과 기독교인 영입을 자제하고 출신 종교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았다. 가능한 사역장 주변 주민들 중에서 선발하고 직원 선발 시에는 필기 및 실기 시험과 면접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 선발된 뒤에는 세부 업무계약과 사전에 자세한 사역 안내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지만 어느 종교인이든 각 사역장 별로 매일 출·퇴근 전에 드리는 예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2) 소속선교사들이 모스크 이맘들에게 코란을 배우는 등 지역 모슬렘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양질의 의료·교육·지역개발·시범농장·기술교육 등의 사역을 실시함으로써 모슬렘, 힌두교 주민들과의 소통을 늘려가며 지역의 개발과 관습의 변화에 대한 관심 보다 지역 주민들과 구성원들의 개인적 경험 변화에 집중하였다.

3) 찰마리 지역은 주민 20만 명에 군청 진료소 한 곳 뿐이었다. 주민들의 의료 환경을 정밀 조사하였고 특히 아무런 시설 없이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인근 9개의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공중보건 사역을 위해 각 섬마다 마을 보건 건강원을 상주시켰다. 주 단위로 주민 이동 현황, 가정별 가족계획 현황, 식수 공급원, 임산부 및 영·유아 현황 등을 조사하였고 매주 각 섬 지역에서 진료,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긴급 환자들은 찰마리 사역장 안의 진료소로 후송 치료 하는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섬 주민들을 정성으로 섬겼다. 울리뵐 지역에서는 1,000여 가정의 음·양성 나환자들의 재활훈련원과 자녀들을 위한 호스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유, 초, 중 고등학교 와 기술학교, 시범농장과 자립마을 사역을 시작하여 지역의 한센인 들과 주변 주민들의 공동의 짐을 나누어 졌다.



4) 농업 및 지역개발 사역은 지역 청소년들과 농부들의 정신교육과 신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농군학교를 개교하여 장·단기 합숙교육 실시하였고 상습 홍수지역인 찰마리와 섬 지역의 물이 차고 빠지는 기간을 이용하는 농사법을 보급하였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사, 수질 검사, 정수시설과 모스크와 힌두 사원 중심의 주변 마을에 신용협동조합, 마을 발전위원회 만들었다.

5) 음악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교육하며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는 비정규교육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였다. 봉제기술학교에서는 3~6개월 과정의 교육생들에게 필수 과목으로 코란과 성경에 나오는 나뭇잎 옷, 가죽 옷, 흰 옷, 검은 옷, 성결의 옷, 구원의 옷 등 140여 가지의 옷과 장신구 찾기 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슬렘 교육생들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고 육신의 의복만이 아니라, 영혼의 옷에 관심 갖게 하였고 컴퓨터 훈련원에서는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와 기독교 문화를 소개하였다.



6) 현지교회 사역은 20명 이상의 회심자들이 생겨서 그들이 자신의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의 힘이 생길 때 까지 공개 세례를 하지 않았고 예배당 건물 등 현지의 신생 교회 주요사업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10%를 현지 교인들이 마련할 때까지 기다렸으며, 현지교회 목회자의 생활비와 운영비는 전적으로 현지 교인들의 헌금으로 충당케 하였다.

기독교인 고용을 자제하고, 모슬렘, 힌두교도 시각으로 접근하고, 사전의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지역민들에게 절실하고 지속 가능한 사역, 현지인들이 우리의 일이라고 공감하는 사역, 저급한 수준이 아닌 양질의 봉사, 시작 초기부터 이양까

지 시간표에 따라 진행하면서 사람(개인구원), 지역교회(신앙공동체), 자립공동체(자립마을)라는 사역의 중심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였다.

**(2) 중점 선교사역 분야(예: 교회개혁, 교육, 의료, NGO 활동 등)는 어떻게 결정하고 시작하셨습니까?**

방글라데시의 이슬람국교 선언, 선교사 추방 등 긴급한 상황에 서구교회들은 빠르게 NGO사역으로 자신들의 사역을 재정비하였지만, 당시의 한국교회는 대안이 없었다. 지금도 그런 이들이 간혹 있지만 1980년대만 해도 선교를 직접선교와 간접선교로 구분하며 기독교개발 NGO 사역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 국내 자생 단체도 없었다. 서구선교사들의 합리적 사고, 세밀한 계획과 철저한 관리진행에 한국인의 열심을 더하면 우리 한국선교사들도 기독교 개발 NGO 사역을 잘 감당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당시 방글라데시에 있던 한인 선교사 전체인 우리 부부와 두 명의 한인선교사 그리고 교민 등 6명으로 가칭 방글라데시선교회(KMB) 설립을 추진하였고, 당시 서구 선교계가 전략적으로 ‘선교’를 ‘개발’로 바꾸고, 선교학 학위도 국제개발 학으로 바꾸는 전략에 따라 KMB를 KDAB(한국방글라데시개발협회)로 공식 등록하였다. 기독교개발 NGO사역은 억압과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전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역이라는 확신으로 그간의 전통 선교방법을 내려놓고, 기독교 개발 NGO사역을 중점 사역으로 결정했다.

**(3) 주요 선교사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양식에 따라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양식’은 질문7번 항을 의미 함)

5. 위기 : 위기가 여러 번 있었을 경우에는 위기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 사역 과정 중에 사역의 기로에 처한 위기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어떤 위기였습니까? (이 질문에서의 ‘위기’는 극복하지 못할 경우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급격한 사정의 변화를 말하며, 앞 질문에서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지만 사역 중단과는 거리가 있는 일상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과 구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 KDAB를 설립하고 등록절차 진행 중, 한국 모 교단의 후원 받는 현지인 모슬렘 개종자가 KDAB가 전략적 선교기관이고, 선교사들이라고 고발한 일이 있다. 이 일로 한밤중에 정보부 사복 경찰의 가택수사 받았는데, 당시 서재에 쌓여 있던 벵골어성경 박스들을 열어보지 않고 지나가게 그들의 눈을 가려 주셔서 추방과 기관 승인 취소위기를 면했다. 이후에도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한인선교사들과 KDAB 사역을 방해하던 그는 결국 후원교단에서 제명되고, 미국으로 이주하고 그의 한국인 부인과 이혼하고 중풍으로 쓰러졌다.

2) 공식적으로 KDAB사역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날 무렵, 과격 이슬람단체들의 집중 공격이 시작되었다. 당시 자마트 이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과격단체들은 기독교선교사들이 국제 NGO 옴겨가 선교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허가한 정부를 상대로 매년 방글라데시 내의 선교단체 한곳을 선정하여 그들의 주요 사역장과 인근 마을을 불태우는 등 전국적인 반기독교 활동을 확산시켰다. 이들의 공격으로 방글라데시 남부 치타공 산악지방의 월슨박사의 마름갓병원과 주변 마을이 불태워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사건이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이번에는 KDAB를 지목하여 개발 NGO로 위장하여 이슬람이 지배하는 방글라데시 최북단 지역에서 활동하는 KDAB를 허가한 방글라데시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중앙국립모스크의 최고 지도자는 KDAB와 나의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성스러운 이슬람 땅 방글라데시를 복음화하려는 사탄의 무리인 KDAB 활동을 즉시 정지시키고 선교사들을 추방하지 않으면 수도 다카 국제공항을 점령하는 등 대대적인 반정부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고, 주요 일간지들은 1면 톱 전면에 이 기사를 연일 기재하는 하는 등 상황이 긴박했다. 우리 공관은 현지 경찰에 나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만이라도 일시 출국할 것을 강력 권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KDAB 현지인 직원들은 조를 짜서 KDAB 다카 사무실과 나의 숙소를 지켰고, 현지교회 지도자들과 서구 선교사들은 진심으로 기도하며 격려해 주었다. KDAB 등록과 사역승인을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를 적극 설득하고, 사역이 시작된 후에는 먼 찰마리 사역장까지 직접 올라와 격려 해 준 한국대사도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그런 와중에 총선이 시작되었고 방글라데시 정국 혼란은 최고조에 다다랐고, 우리가 세 든 건물 아래층에 임시 투표소가 설치되면서 무장 경찰 병력이 24시간 내 숙소 경비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총선으로 쏠리면서 강경 이슬람세력의 계획은 허사가 되었고 주요 일간 신문들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았다. 이 일로 나의 이름이 주요 요시찰 명단에 올라 있지만, 오늘까지 방글라데시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2)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어 현지인과의 관계, 현지 종교와의 가치충돌, 다른 선교사와의 관계 또는 단기 선교 등의 문제)**

현지 종교와의 가치충돌이 주요 원인 이었으며, 다른 원인은 당시 한국교회와 선교 지도자들이 개종한 현지인을 한국에서 훈련하여 그들의 모국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역을 의욕만 가지고, 철저한 검증과 훈련 없이 서두른 결과라 여긴다.

**(3)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극복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크고 중요한 일이나 사건일수록 현지인들 보다 한 발자국 늦게 결정하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파도의 끝자락을 떠올리며 정면으로 대응하였다.

**(4)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현지인의 도움 제도 또는 환경의 변화 등)**

현지인들과 동역자들의 도움과 환경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믿는다.

**(5) 위기를 극복한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위기 극복의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극렬 이슬람 세력의 공개적 방해가 줄어들었고, 지역주민들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갈수록 흥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그 당시 우리에게 대한 정보를 캐며 극렬 이슬람세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찰마리 지역의 선임 기자들이 그때의 일을 미안해하며 KDAB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 6. 제언

**(1) 선교 사역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다시 그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했을텐데...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사역과정에서 여러 차례 질병을 앓았고 치사율이 매우 높은 출혈성 뎅기 열에 걸려 사경을 헤맨 일이 있다. 평소에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도 맥박이 뛰는 한 나를 외국으로 후송하지 못한다고 고집하여 왔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잃고 나서야 현지인들이 병원으로 옮겼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어렵게 의식을 회복하고 숙소로 옮겨져 한 달 동안 격리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하루는 꿈에 멀리 떨어져 사는 큰 아들이 찾아왔다. 어려서부터 몸집이 크고 건강했던 아들이 알아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마르고 몸을 가누지도 못해 기어서 들어오면서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내게 내밀었다. 그러고는 아빠에게 선물하려고 오랜 동안 먹지도 쉬지도 않고 밤낮 일하느라고 중병을 얻었다고 말했다. 순간 나는 “누가 너보고 선물 가져오라고 먹지도 쉬지도 않고 그렇게 일하라고 했냐!” 고 소리 지르다 깨어보니, 아들의 병든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님처럼 일하는 것이 매일 피를 흘리며 쉬지도, 먹지도 않고, 밤낮으로 일만 하는 것인 줄 알고 정신없이 달려 온 나의 인간적 열심을 내려놓을 것이다.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귀신을 내쫓고, 틴틈이 잘 쉬시고, 열심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건강한 육체, 정서, 영성으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위로하

고 격려하고 싶다.

**(2) 평신도, 전문인, 단기 사역 등의 필요성, 방법, 보완해야 할 사항 등 선교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1) 한국교회의 평신도, 전문인, 단기 사역의 필요성, 방법 등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한다.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한때 일방적으로 입양당하는 종족들과 현장 선교사들의 입장은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일부 이론가들과 선교운동가 들이 종족입양과 선교사 재배치 운동을 전개하며, 수십 년을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를 갑자기 아시아로 재 파송하는 등 선교의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와 손실이 얼마나 큰지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 그러나 선교지와 선교사들에 관하여서는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정작 한국교회 자신을 위한 정보와 대책 (매해 한국교회 전체가 단기선교로 파송하는 국가별, 지역별, 사역별, 기간별 통계 등)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모 교단의 경우 교단 내의 교회들이 태국 치앙마이 지역에 그해 여름에 단기선교 팀을 보낸 교회 수가 300개를 넘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지역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그해 여름에 보낸 단기 팀의 수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이 일에 대해서는 현장선교사들도, 교단도, 선교단체들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런 현상은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멕시코 유카탄 등 다른 지역들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남아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각 교회별로 선교회별로 계획되어 자유롭게 진행되는 단기선교의 정보들이 공개되고 공유되어 한국교회 전체로 볼 때 여전히 몇 지역으로 집중되는 쏠림과 중복투자를 해결하고, 편리하고 가까우며 안전한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남아있는 종족에게 향하는 거룩한 발걸음이어야 할 것이다.

2) 선교지가 없는 선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선교 없는 선교지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교회들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장·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열정 때문에 선교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선교사나 교회의 필요와 다른 요청 때문에 선교사를 지원하고 파송하는가?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인가? 아니면 선교사와 파송한 교회를 위한 선교인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사와 파송교회, 선교지가 모두 필요하지만 선교지는 목적이고 선교사와 파송교회와 교단은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선교지를 자신들의 자녀들과 교회 청년들, 선교 준비생들의 해외선교 훈련 장소로 착각하는 듯하다. 선교가 선교사나 파송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선교지의 복음화 때문에 선교사와 단기선교가 필요한 것이지, 선교사나 파송교회와 교단 때문에 선교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3) 선교 사역 과정 중에서 한국 교회 선교의 앞날을 위해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험 또는 제언, 당부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1) 일선 선교사로서 건강한 한국선교를 위한 기독교방송들과 신문 등 기독교 언론 종사자들의 헌신과 애씀을 깊이 감사한다. 그러나 선교사역을 과장하고 선교사를 미화하며 성도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단순한 동정심과 채무감에 빠지게 하는 식의 기사나 프로그램 제작을 자제하고 한국선교의 최우선 과제로 선교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사와 선교구조가 건강해지는 일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한다.

2) 공무원, 회사원, 교사, 의사 등 전문인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연수교육 등 지속적인 재교육과 철저한 관리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더 철저한 교육과 통제, 관리가 요구되는 선교 사역과 선교사들은 정작 파송 후에는 교육과 통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다. 사역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비를 대는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이론가들과 행정가들이 강의하고, 선교사들은 그저 듣는 전략회의, 선교대회 참석하는 정도가 전부다. 제발 선교대회, 전략회의 등의 회의나 대회는 자제하고 최소한 국가 공무원과 대기업 수준만이라도 정기적인 연수교육과 선교사의 심성, 지성, 영성, 물질관, 전문성 관련 전문교육 등에 관한 지속적인 훈련 그리고 통제, 관리 평가를 실시할 것을 당부한다.

3) 연한과 사역을 자랑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사가 한국 교회보다 더 긴 선교지의 전통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오랫동안 사역한다고 하지만 정작 복음이 필요한 이교도들에게는 다가가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는다. 모슬렘들은 성경을 변질된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교도들은 서구식 기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데도 여전히 전통적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전통적 신학교, 서구식 교회 건물을 지으며 모아 놓고는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전도하거나 양육하지 않는 게으름을 회개해야 한다. 선교의 목표는 현지인들이 스스로 서게 하는 자립선교를 수행하는 것이다. 선교지 교회들이 선교사들과 파송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갈수 없는 곳에 가주소요!, 재정을 현지 교회에 넣고 투명하게 사용해 주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소요!’ 라고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4)그 외에 선교사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1)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선교사가 그 지역의 문화, 역사, 환경, 종교, 사회,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개인의 경험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모든 종류의 선교사역들과 시설들은 개인의 경험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도구는 수단이고 목적은 개

인이다. 결코 수단이 목적이 되지 말게 하자! 한 개인의 변화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개인적 접촉으로, 개인적 영접으로,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역의 문화, 역사, 환경, 종교, 사회, 경제 등의 사회구조를 고치면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 개인의 중심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각종 사업과 정책을 만드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판에 쓴 것이라’ (고후3:3). 우리의 표정, 언어, 삶으로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게 하자!

2) 한국선교 초기에는, 선교를 직접선교와 간접선교로 나누었다. 교회개혁, 교회건축, 교역자 지원, 신학생훈련 등은 직접선교이고 나머지는 간접선교라고 하며 경시하였다. 그러나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건축했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를 믿은 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자립하게 하는 일을 방치하여 회심자들이 선교사와 선교부에 대책 없이 의존하게 만든 것이 한국선교의 한계이다. 개종한 회심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바로 기독교 개발 NGO의 연합사역이다. 개인이나 교회와 단일 교단이 아무리 훌륭해도 모두를 합한 것보다 우수하지 못하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여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전4:9-10)” 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우리는 이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외롭고, 고독하며, 긴장으로 하지 않고, 협력과 동역으로 이루어가는 연합사역을 재건하는 노력들을 확산시키는 데에 힘을 모으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연합으로 일하자! 팀이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힘을 주시는 적극적인 사람들의 그룹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 7. 사역 사역별로 구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1) 사역의 종류 및 명칭

- 1) 증거사역 : 현지교회 사역, 개인전도, 1:1 양육, 모슬렘 및 힌두교인 대상 성경 공부.
- 2) 교육사역 : 유, 초, 중, 고등학교 사역.
- 3) 의료사역 : 외래 진료, 이동진료, 공중보건, 가족계획, 모자보건 사역.
- 4) 지역개발사역 : 나환자 재활 훈련, 호스텔, 자립마을, 농촌 지도자훈련, 시범농장, 신용협동조합 사역.
- 5) 직업훈련사역 : 봉제 및 컴퓨터교육 사역.
- 6) 문화 및 스포츠 사역 : 국제음악학교 & 칼리지, 태권도 아카데미 사역.

7) 장학 사역 : 신학생, 상급학교 진학자 장학사업 등

(2) 사역의 개요와 현황 (사역의 규모, 동역 인력, 인·허가 등)-

1) 인·허가 : 1990년 방글라데시 정부 국제 NGO 등록.

1998년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 사단법인 등록.

2001년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협력단 NGO단체 등록.

2) 동역 인력 : 전임사역자 한국인 6명, 현지인 96명 계 102명 (2015.8 현재)

3) 사역 규모 : 찰마리 교회 15명, 울리빨 교회 35명(2015년 8월 현재). 농군학교, 시범농장, 컴퓨터, 봉제기술교육원 7,000여명의 농부, 마을 지도자, 여성 및 청년 지도자 배출, 3개의 유·초·중·고등학교, 기술학교, 태권도 아카데미, 음악학교 & 칼리지에서 16,791명 교육, 주민진료 21,713명, 이동진료 18,496명, 공중보건 <가족계획, 임신부관리, 영 유아관리, 영양식보급, 펌프 및 화장실 보급> 202,901명, 위생 및 보건교육 71,102명, 한센 가족 재활훈련 및 정착지원 1,945명 등(1990년-2013년 통계)



(3) 사역의 목적 및 계기(왜 그리고 어떻게 이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지요? 예를 들면 직접적인 복음전도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인지, 현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선교방법을 선택한 것인지, 선교에 대한 시각의 변화로 사역을 선택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최북단 찰마리 군과 울리빨 군 지역 주민 50만 명은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강한 이슬람과 힌두교 신앙을 이어가며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2001년 대홍수 후 브라마푸트라 강 안에 새로 생긴 모래섬으로 대책 없이 이주해 온 2만여명의 주민들은 홍수, 태풍 등의 상습적인 자연재난을 당하면서도 기본적인 진료와 교육을 받지 못했다. 울리빨 군내에 거주하는 1,000여 가구의 음, 양성나환자가정들과 다카의 도시 빈민들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채 현지교회나 기독교 선교활동이 전혀 없었다. 1988년 이슬

람국교 선언, 반기독교 정서 팽창, 선교사 추방 등 사역환경이 매우 어려워졌지만, 국제 NGO에게는 체류 비자와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어 NGO를 통한 개발 사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시도가 필요했다.

**(4)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억나는 점, 어려운 점, 그리고 전환점 등을 소개해 주십시오.**

1) 초창기 선교지원자 모두를 철저한 검증과 훈련 없이 받아들여 한때 27명의 선교사들이 KDAB 사역장에서 활동하였다. 사역이 확장되고 공동체 생활과 팀 사역이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역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갈등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선교후보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 자세한 사역안내, 세밀한 업무계약과 현지에서의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제도화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한인 선교사의 수가 줄었지만 꼭 필요한 정예의 한인사역자들이 담당 사역들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다.



2) 처음 정부의 단체 승인 심사 받을 당시 우리의 재정은 100만원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 관리들은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5년 예산의 10%인 3억 원을 요구하였다. 부정확한 뇌물로 흥정하지 않고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들을 모두 거치느라 3년을 기다려야 했다.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후에는 선교회와 소속 사역자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뇌물을 요구할 때에도 끝까지 기다리며 타협하지 않았다.

3)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슬람의 대대적인 공격과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기진해 있을 때,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방글라데시에 오셨다. 그러나 마르고 새까맣게 탄 손자들과 아들 내외가 안쓰러우셨는지 숙소에서 도착한 내내 얼굴이 어두우셨다. 간단한 식사 후 부모님께서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이내 방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셨는데, 잠깐 잠이 든 사이에 꿈을 두 개나 꾸었다며 당장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는 그림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가지가 하늘에 달았는데, 줄기가 다 썩어 금방 쓰러질 것만 같은 꿈이었다고 하셨다. 그러시고는 이 꿈이 방글라데시의 선교와 현지교회의 모습 아닌지를 물으셨다. 다른 하나는 지난 36년간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않은 너의 출생의 비밀에 관

한 것이라며 상기된 얼굴로 태몽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형, 누나들 경우 하늘에서 천사들이 광주리에 고기를 담아서 내려 주는데, 처녀들이 서로 큰 고기 담겨 있는 광주리를 받으려고 싸우고 있었다. 그 사이 어머니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높게 뛰어서 큰 잉어와 붕어가 들어있는 광주리를 받아냈다고 하셨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 힘껏 뛰어 올라 제일 큰 광주리를 잡아 당겨 보니 광주리 안에는 형과 누나들 때와는 달리 징그럽게 생긴 뱀장어, 가물치, 미꾸라지들이 가득 담겨져서 서로 뒤엉켜 거품을 물고 있었다고 한다. 불길한 태몽이어서 지금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병약하고 속을 썩일 때마다 어머니 당신께서는 평생 지고 갈 십자가로 여기고 살아왔노라고 하셨다. 그런데 오늘 그때와 똑같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다.

오늘 공항에서 도착하면서 처음 본 방글라데시 사람들, 공항 안의 수많은 걸인들, 모두가 올리브유를 머리에 발라 작은 사람은 미꾸라지, 긴 사람은 뱀장어, 큰 사람은 가물치로 그때 본 모습과 똑 같았고, 큰 광주리 안에 모든 고기가 종류별로 께어 담아 놓으셨더라고 말씀하시며 ‘순호 너는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위해 세운 선교사가 확실하다. 염려하지 말고, 극렬 이슬람교도들이나 천민, 부자, 관리 등 가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다. 수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오라고 장문의 편지로 설득하시던 부모님이 그렇게 최고의 후원자요, 동역자가 되어 주셨다.

#### (5) 사역의 후원자, 지원자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후원교회 33곳, 기관 9곳, 개인 94명(2015년 8월 현재).

##### 1) 소속선교사(장순호, 장영인, 김남희, 임경래, 조세희, 정미경 등 6명)

-후원교회 : 삼봉교회, 목양교회, 중앙교회, 둔산성광교회, 예본교회, 여수제일교회, 부평제일교회, 새벽이슬교회, 토론토중앙교회, 플로리다비전교회, 훌리크로스교회, 퀸즈감리교회,

-후원기관 : KCOC.

-개인후원 : 심진숙, 이택준, 서건이, 흥기국, 윤신준, 최영애, 황건식, 강한규, 공기권, 권필상, 김예근, 김효상, 유근정, 임정숙, 김명길, 백승협, 최호석, 황은주, 구도묵, 장명자, 최재훈, 김형곤, 정인순, 김인영, 김승현, 이고은, 이은경, 이한나, 고은미, 서봉원, 김성숙, 방난희, 이지희, 염은혜, 강태임, 김동욱, 최한나, 이영주, 김은결, 김찬결, 이철호, 김진영, 권영숙.

##### 2) 교육사역 후원

- 후원교회: 온누리비전교회, 토론토중앙교회, 뉴호프교회, 시카고비전교회,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 EM.

- 후원기관 : 에이치투, 시카고백합선교회. 세계기도일 한인여성연합회,
- 개인후원 : 서영선, 박광택, 함용철. 변병선, 이기웅, 권종숙, 나효자,

### 3) 증거사역 후원

- 후원교회 : 주안교회, 훌리크로스교회, 시카고 한사랑교회, 뉴욕천성교회, 메디슨빌교회. 소명교회.
- 개인후원 : 무명, 이정현, 이상교, 문생금.

### 4) 농업 및 지역개발사역 후원

- 후원교회 : 부천보양교회<이수한>, 남가주 주님의 교회, 콜로라도연합감리교회.
- 후원기관 : 작은모임,
- 개인후원 : 안사훈, 이정선, 임혜숙, 홍설철, 홍종성, 성기돈, 선겸, 유겸, 박영조, 이성자, 송화숙

### 5) 의료사역 후원

- 후원교회 : 참빛교회, 배다니침례교회, 디트로이트연합감리교회.
- 후원기관 : 부천약사회, 신촌세브란스 외래간호팀, 원주세브란스병원.
- 개인후원 : 조병옥, 조강원, 장미선, 노시진, 흥한나, 박준환,

### 6) 나환자 / 호스텔 사역 후원

- 후원교회 : 예손교회<신일균>. 디트로이트연합감리교회, 서울침례교회 울리빨 목장, 후러싱제일교회, 시카고비전교회.
- 후원기관 : 글로벌 어린이 재단.
- 개인후원 : 장미선, 소봉순, 박성만, 연이분, 이미경, 조은레, 양희숙, 조현제, 조세희, 권구재, 장동혜, 신원경, 한순옥, 알렉스 김, 빅토리아 어거스티니악,

### 7) 본부 및 행정사역 후원

- 개인후원 : 류심현, 한상호, 강한규, 유성준, 소봉순, 오종탁, 이수현, 장동욱.

## (6) 사역의 계속성, 유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1) 선교사 주도의 사역 운영관리 체재에서 현지인 직원 전체가 각자의 사역에 직접 참여하고, 운영 관리하는 공동 운영체재로 진행 중인 현재의 사역운영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며, 그동안 선교사와 현지인 관리자들만이 공유하였던 사역관련 주요 정보 ( 인사, 재정관리 등)들을 모두 공유하여 현지인들이 더 이상 KDAB 고용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인으로 살아가게 한다.

2) 공동체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 해당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 적정기술 (농업양수 확보를 위한 수동식 물 펌프, 태양열 부화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사료 공장 등)을 개발해 나간다. 부화기, 양계, 양어, 과수 사업 등의 소득사업을 확장 발전시켜 2015년 8월 현재, 방글라데시 사역장의 재정 자립도 전체 지출의 30%를 향후 5년간 70%로 확장한다.

**(7) 사역의 장기적 전망 및 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히 사역의 계승 및 발전적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선교사 주도형에서 현지인 주도형의 적정사역, 적정전략, 적정정책을 적용, 개발, 확장 발전시킨다.

2) 자립농장, 과수단지, 병원, 기술학교 등의 수익사업과 지역교회, 자립마을 사역과, 음악, 교육, 보건, 수의과, 신학대학 등의 대학교육을 확장 발전시킨다.

3) 짚마리, 울리빨 교회 재단법인에 KDAB의 운영관리, 시설, 재산(짚마리, 울리빨 사역장 17에이커, 발루까 수양관 19에이커 등 부지 36에이커, 학교, 병원, 훈련원, 교회 등 건물 60개 총 128,000 제곱피트) 등을 단계적으로 이양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지역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